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말뚝박은 시골목사 강원도 신평교회 목사 신익호

따르릉 따르르릉
다급한 성도의 방문 요청에
맨발로 달려가 보니 기다리는 건
병든 송아지 한 마리
안타까움에 일그러진 성도의 얼굴
얼떨결에 송아지 머리잡고 기도했다.
그리고 난 그 교회에 처음으로
말뚝을 박았다.

부임하고 맞이한 첫 주일
고장난 앰프 끝내 손 못 보고
고래고래 소리내어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성도들의 전화
"목사님!
온 마을에 소리가 다 나갔어요!"
앗차! 외부 스피커로 온 마을에
생방송된 예배실황.

가난한 성도
가을에 추수하여 방앗간 기계에서
처음 떨어지는 알곡 한 말
어깨에 메고 교회로 달려오는데
성도의 검게 탄 얼굴 사이로
흰 이가 반짝거린다.
그 날 내 마음엔 눈물의 강이 생겼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아침
방문 앞 현 신문에 실린
이름 모를 산나물 한 봉지
별것 아니어서 드리기 민망해
살며시 두고간 이름 모를 성도의 정성
그 마음이 감사해
내 마음 눈물의 강에 꽃이 피었다.

경연쩍게 내미는 까만 비닐봉지
그 속엔 파란 풋고추
중학생 아들녀석
점심 찬으로 삼기 전에
버선발로 달려가
땃발에서 땀 처음 열매라고
말끝을 흐리는 성도의 마음
난 또 하나의 말뚝을 박았다.

까만 얼굴 피곤한 모습
논 일 끝내고 찾아 온 예배당
그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내 얼굴 희지 않고 검음에
감사했다. 그리고
마음의 짐을 조금 벗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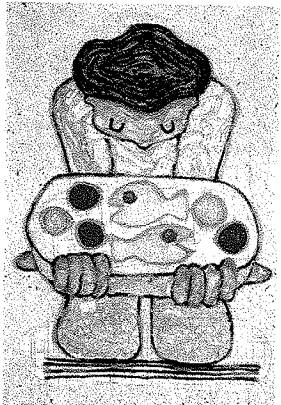
부임한지 팔 년 만에
학생회 사라지고 주일학교 사라지고
동네엔 아이들의 재잘거림 줄어들고
예배당 빈 좌석은 점점 늘어가는데
이 모두가 못난 목사의 책임인양
교인보기 민망하고 주님보기 죄스럽다.
죄인이 따로 없는 목사의 마음

아빠가 최고인양 자라난 아이
어느새 철이 들어 눈치는 빠삭한데
애써 외면하고 어깨에 힘줘 보지만
감출 수 없는 작은 시골교회
아빠 목사의 처진 어깨는
무엇으로 감춰야 할거나.

무더운 피서철의 예배시간
피서 길에 어쩌다 들른 도시교인
수 억의 예배당에 시설은 어쩌구 저쩌구
자랑이 늘어갈수록
내 모습 점점 작아지고
내 얼굴 검음이 부끄러움 되어
쥐구멍을 찾는다

오늘은 어린이가 주인공인 어린이주일
주인 없는 시골교회 썰렁함만 더하고
힘없이 내려와 인사하는데
구십을 바라보는 할머니 집사님
못난 목사 손 잡으며 하는 말
"내 죽을 때 까지 가지 마세요!"
그 애뜻함 내 마음을 적시고
가슴 아린 감사함에
오늘도 하루를 접는다.
내 나이 마흔 하나
도회지에 나가서 목회하고픈 마음
아직 간절하고
이 궁색함 면하고픈 마음 간절한데.....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 '건강한가정건강한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경과 봉사 *의명성 -영예
송구영신예배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12월 31일
☎520-9464, 369-5077,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ca.to		



늡음과 낡음

-이 우 근-

곧게 늡어가는 이를 만나면 세상이 참 고와 보입니다.
늡음 속에 낡음이 없고 도리어 새로움이 있습니다.
곧게 늡어가는 이들은 늡지만, 낡지는 않습니다.

늡음과 낡음은
글자로는 불과 한 획의 차이밖에 없지만
그 품은 뜻은
서로 정반대의 길을 달릴 수 있습니다.

늡음과 낡음이 함께 만나면
허무와 절망 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늡음이 곧 낡음이라면 삶은 곧 '죽어감'일 뿐입니다.

늡어도 낡지 않는다면 삶은 나날이 새롭습니다.
몸은 늡어도
마음과 인격은 더욱 새로워 집니다.

더 원숙한 삶이 펼쳐지고
더 농익은 깨우침이 다가옵니다.
늡은 나이에도 젊은 마음이 있습니다.
늡었으나 새로운 인격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낡은 마음이 있습니다.
젊었으나 쇠잔한 인격입니다.
겉은 낡아 가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름답게 늡는 것입니다.

겉이 늡어 갈수록 속은 더욱 낡아 지는 것이
추하게 늡는 것입니다.

새로움과 낡음은 삶의 미추를 갈라 놓습니다
글자 한 획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송구영신예배

목도	성가대:459장(1절)	다같이
참회의 기도		
*찬송	24장	
*성시교독	53 (계 21)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460장 '지금까지 지내 온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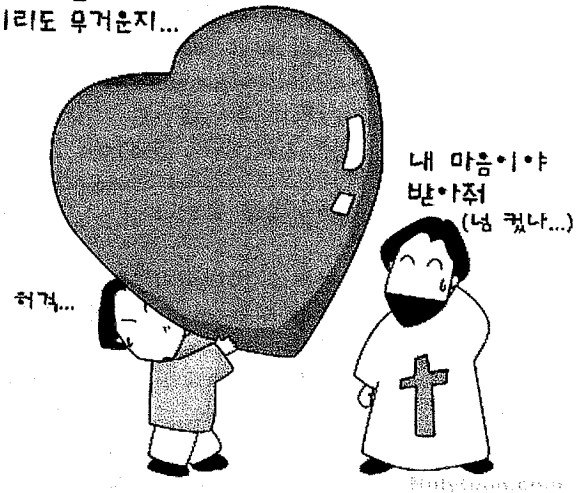
성경봉독	히브리서4:13-17	인도자
성가대 찬양		나무십자가성가대
설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인생	김성국 목사
찬송	"358장"	다같이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축도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뒤편에서 떡을 나누며 새해인사를 나누겠습니다)

2003년 감사와 기도

- 찬양 날 구원 하신 주 감사
- 시낭송: "용서해 주세요" 지찬영 권사
 <회개의 기도> 믿음 열심 내지 못했던 것/ 이웃에 대해 무례했던 것
 찬양(성가대) 466장(1,2절)'나 어느 곳에 있든지'
 - 시낭송: "나 어떡해요"
 <믿음을 위한 결심기도>:주일/수요예배. 가족을 잘 이끄는 믿음.
 말씀대로 살려 애쓰는 믿음
 찬양(성가대) 364장(1,4절)'내 주를 가까이'
 - 시낭송:"행복했던 시절"
 <가족과 가정의 계획을 위한 기도>
 찬양(성가대) 305장(1,2절)'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 시낭송:"그대는 가졌는가?"
 교우를 위한 기도"환자. 영주권. 사업.
 찬양(성가대) 410장(1,4절)'아 하나님의 은혜로'
 - 시낭송:"우리교회 성도들"
 교회를 위한 기도:오클랜드내 미자립교회의 자립을 위한 기도
 찬양(성가대): 246장(1.2.3.5절)'내 주의 나라와'
- 기도 인도자

물랐어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리도 큰지
 이리도 무거운지...



http://www.ccsn.org